

투데이 칼럼

북한 대중국 쌀 수입 급증

북한의 올해 쌀 수입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약 5배 늘어났다. 식량난보다는 북한 내 쌀 수요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쌀은 10만t이 넘는다.

북한은 이 기간 중국으로부터 장립종 5만18t과 단립종 5만2천370t 등 모두 10만2천389t을 수입했다. 액수로는 4천701만 달러 상당이다.

북한이 올 1월부터 5개월 간 쌀 수입으로 5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불한 것이다. 북한의 쌀 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9년 1~5월 북한의 대중 쌀 수입량은 올해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만8천111t이었다. 수입액도 약 986만 달러로 올해의 20% 수준이었다. 작년과 비교해도 북한의 쌀 수입량이 급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2022년 북한의 대중 쌀 수입량은 7만3천966t, 수입액은 3천270만 달러였다. 하지만 지난해 쌀 수입 기록은 4개월치만 있다. 7월 한 달을 제외하면 모두 10~12월로 하반기에 몰려 있다.

북한의 대중 쌀 수입 급증 현상이

지난해 10월 시작해 그 여파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쌀 수입을 늘린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다. 다만 북한이 가격이 저렴한 다른 곡물보다 유독 쌀 수입을 늘린 사실이 주목된다. 식량난보다는 늘어난 쌀 수요를 북한 정권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10만은 꽤 많은 양이다. 북한은 쌀, 즉 식량에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아주 심각한 일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식량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수백 만 단위의 식량이 북한으로 유입됐다. 당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식량난을 관별하는 기준 중 하나는 북한의 전체 곡물, 즉 밀과 가루와 쌀, 수수, 옥수수 등의 수입

량을 보는 것이다.

단약 쌀을 더 사들이고 밀가루를 적게 수입했다면 북한이 현재 그렇게까지 공급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극심한 식량난에 처한 것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옥수수를 더 수입했을 것이다.

북한의 올해 1~5월 대중 밀가루 수입량은 3만9천598t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수입량 8만4천555t보다는 약 4만5천t 적다. 북한이 제한된 외화 상당액을 쌀 수입에 쓴 사실은 흔치 않은 일이다.

실제로 북한이 올해 쌀 수입에 투입한 액수인 4천701만 달러는 북한의 대중 전체 수입액 약 7억5천만 달러의 6.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엔 북한 전체 대중 수입액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1.05%였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 내 쌀 수요

를 북한 정권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해석된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쌀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공급된다면 굳이 수입할 이유가 없다.

결국 북한에서 생산되는 쌀이 수요에 모자란다는 뜻이다. 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식량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커졌다.

북한 당국은 양곡판매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쌀 공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양곡판매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양곡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대중 쌀 수입은 수확기인 10월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쌀을 계속해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상인들이 시장에 내놓는 것을 목적으로 쌀을 수입했다.

최근 확인된 북한의 1kg 당 쌀 수입액은 단립종이 미화 50센트, 한화 약 659원, 장립종은 미화 41센트, 한화 540원이다. 7월 23일 북한 내 쌀 1kg 가격은 한화로 약 882원이다. 한화를 기준으로 원가보다 223~342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전주책페 독립출판 북페어

독립출판 북페어인 '전주책페'가 7월 1일과 2일 이틀간 덕진공원 내 연화정도서관 일원에서 펼쳐졌다. '책페'는 책 장수를 말한다. 조선시대에 책의 매매를 중개하는 상인을 부르는 말이다.

'책페'는 단순히 책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조선시대 책 문화를 이끄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였다. 책 목록을 꿰고 있는 북 큐레이터이자 판매 전문가, 그리고 독립출판인, 출판 기획자였다.

'2023 전주책페'는 전국의 창작자와 소규모 출판사 등 종이 책을 1종 이상 제작한 독립출판인들이 모여 직접 만든 신작을 전시·판매하는 책 박람회였다.

총 65팀의 출판인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 현장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전주책페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출판을 꿈꾸는 예비 출판인들에게 좋은 자극과 영감을 주는 축제가 됐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글을 펴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형식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알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전주독서대전 및 전주국제그림책도서관 등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주관한 '전주시립도서관'의 전문성이 실력을 발휘했다. 완관본의 역사를 가진 도시 '전주'와 어우러진 '전주책페'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었다. '독립출판'은 관습을 벗어나 개인의 독창성, 기획, 편집 등을 통해서 책을 만들고 직접 유통까지 하는 독자적인 책 문화다.

이 출판시장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23 전주책페는 독립출판의 미래 그리고 독서문화를 지향하는 많은 사람의 방향성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다. 독립출판인들의 도전과 새로운 출판문화를 응원하는 장이 확대되길 바란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유치

이차전지(二次電池, secondary cell)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와 달리 충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다. 친환경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니켈-카드뮴, 리튬이온, 니켈-수소, 리튬폴리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카메라 등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전자기동차의 핵심소재다. 부가가치가 높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21세기 3대 전자부품으로 꼽힌다.

축전지(storage battery), 충전지(rechargeable battery) 혹은 배터리라 부른다. 이차전지란 이름은 전지를 두 번 이상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소재만 연결하면 전지가 되는 1차 전지가 있어야 충전시켜 전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차라는 이름이 붙었다.

2차 전지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1차 전지보다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다. 그러나 현대

기술문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야가 이차 전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분야다.

전북도가 새만금에 이차전지 분야의 특화단지 선정을 이루었다.

새만금은 대규모 부지의 확장 가능성,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재생에너지로 탄소배출제로 100%·재생에너지 100% 실현,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세·소득세 5년간 최대 100% 감면까지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였다.

산업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지역이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원활한 입지 확보는 물론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

연구개발(R&D)과 국제적인 사업화 촉진도 중요하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전북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니제르 내 모든 외국 군대 무조건 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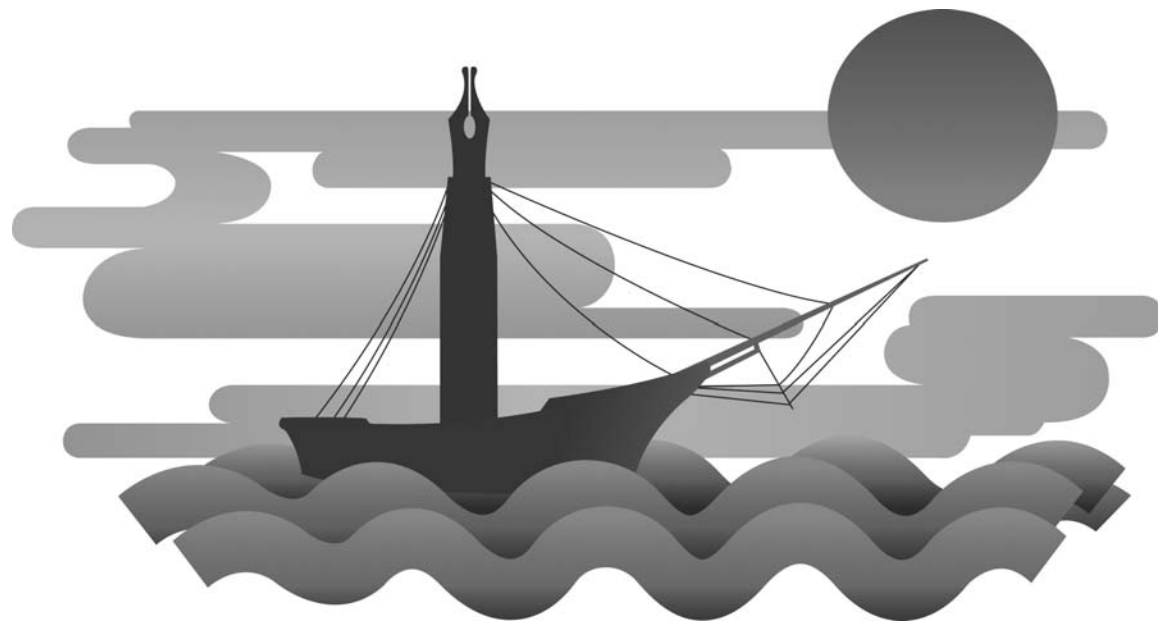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지난 27일(현지시각)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서 군부 쿠데타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지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이 들고 있는 손팻말에는 "니제르 국민은 모든 외국 군대의 무조건 철수를 요구한다" "러시아-니제르 협력 만세" 등이 쓰여 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하는 바이든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으로서 이탈리아 군대는 지중해와 그 너머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탈리아의 우크라이나 지지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